

노인실태조사 결과 및 노인보건복지 발전방안 토론회

| 일시 | 2012년 6월 21일(목요일) 14:00~17:30

| 장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본관 2층)

| 주최 |  보건복지부 · **K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본 자료는 6월 22일(금)부터 언론보도될 예정이므로
그전까지는 외부공개를 금하여 주십시오.

14:00~14:30

등 록

14:30~14:40

개회선언

발 표

14:40~15:20

좌장 : **한 경 혜**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한국노년학회회장)

주제발표

노인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정 경 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20~15:30

휴 식

토 론

15:30~17:00

윤 종 료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 금 룡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임 을 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과장)

석 상 훈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선 우 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손 창 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장 지 연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가나다순)

17:00~17:30

종합토론 및 폐회

노인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노인(65세 이상)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고서의 연구진은 다음과 같음.

정경희 오영희 이윤경 손창균 박보미 이수연 이지현
권중돈 김수봉 이소정 이용식 이윤환 최성재 김소영

CONTENTS

노인실태조사 결과 및 노인보건복지 발전방안 토론회

I. 조사개요	5
II. 주요 조사 결과: 노인(65세 이상)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10
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 _ 10	
2. 노인(65세 이상)의 가족 및 사회관계의 현황 _ 13	
3. 노인(65세 이상)의 가치관 및 삶의 만족도 _ 18	
4. 노인(65세 이상)의 경제상태 _ 21	
5. 노인(65세 이상)의 건강 및 기능상태 _ 23	
6. 노인(65세 이상)의 경제활동 실태 및 욕구 _ 30	
7. 노인(65세 이상)의 여가·사회참여 실태 및 욕구 _ 33	
8. 노인(65세 이상)의 생활환경 및 생활실태 _ 35	
9. 노인(65세 이상)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욕구 _ 38	
III. 조사결과의 시사점 및 제언	45
1. 조사의 향후 발전방향 _ 45	
2.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_ 48	

I. 조사개요

제1절 배경 및 목적

-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개발 및 향후 고령사회 대응 정책 개발에 필요한 신뢰도 높은 자료생산을 위하여,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실시되었던 노인실태조사가 2007년 1월에 노인복지법 제5조에 3년마다 실시되도록 법제화되었음.
 - 이에 따라 2008년도에 처음으로 법적 기반에 기초한 전국 노인실태조사가 이루어진바 있으며 2011년에 두 번째 조사를 실시하였음.

- 이에 따라 기존의 조사내용과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여 2011년 8월 31일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 현장조사(2012년 1월 16부터 20일까지 추가조사 실시)를 실시하였음.
 - 조사과정은 다음과 같음.

〈 조사 진행도 〉



□ 조사완료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기존의 3,142개의 조사구에 거주하고 있는 총 11,542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음.
 - 이 중 65세 이상은 10,674명으로 2011년 기준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관한 횡단 통계산출의 대상임.
 - 또한 2008년 조사가 실시된 패넬은 총 15,142명 중 10,003명이 조사완료 됨.
 - 표본유지율은 2008년 기준 66.0%이며, 2010년 전화조사에 기초한 패넬유지에 기초할 때는 71.1%임.
 - 3년간 2008년 조사자의 5.6%에 해당하는 902명이 사망하였으며, 사망 및 장기요양입소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이탈한 노인은 1.6%인 236명임.

〈 2011년 노인조사 완료 현황 〉

(단위: 명)

시도	총 조사 완료 노인수	65세 이상 노인수
강원도	443	418
경기도	2,218	2,058
경남	593	543
경북	856	813
광주	295	281
대구	561	534
대전	296	285
부산	920	837
서울	2,220	1,939
울산	190	182
인천	521	495
전남	690	652
전북	574	533
제주	142	138
충남	614	594
충북	410	373
전국	11,542	10,674

〈 2008년 노인실태 조사자의 2011년도 조사 현황 〉

완료	전체		10,003명 (66.0)
	본조사시 조사완료		9,759명 (64.4)
	추가조사시 조사완료		244명 (1.6)
미완	체크리스트	전체	1,159명 (7.7)
		사망	902명 (5.6)
		입원	145명 (1.0)
		장기요양입소	91명 (0.6)
		무응답	21명 (0.1)
	조사미접촉(강력거부 등)		3,984명 (26.3)
총 대상자 수			15,146명(100.0)

〈 노인실태조사의 패널 유지율 〉

	기준 ¹⁾	기준 ²⁾
1차 년도(2008년도)	15,146명	14,061명
2차 년도(2011년도)	10,003명	10,003명
패널 유지율	66.0%	71.1%

주: 1) 2008년 조사완료자수 기준

2) 2010년 패널관리시 연락처 또는 주소지가 확인된 대상자와 입원 및 장기요양중이었던 대상자 기준(사망자만 제외)

〈 사후관리를 위한 전화조사결과 총괄 〉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본조사)결과		2011년도 패널관리용 전화조사 결과		
설문완료	11,542명	전화연결 (10,351명)	생존	10,301명
			사망	50명
		전화연결 실패		1,191명
입원	145명	퇴원·퇴소		53명
장기요양 시설입소	91명	입원·입소		61명
		전화연결 실패		124명
무응답	21명	사망		19명
사망	902명	사망		902명

□ 조사내용

○ 2008년과 2011년 설문지 구성의 영역의 통합 및 순서 조정, 비중 조정

〈 2008년과 비교한 설문지 변화 내용 〉

2008년		2011년	비고
1. 가구 조사표	A. 가구원 일반사항	I. 가구 일반사항	유지
	B. 주거형태	II. 가구 경제상태	유지
	C. 소득		유지
	D. 가계지출		
	E. 자산과 부채		삭제
2. 노인 개인 조사표	A. 자녀유무와 동거유형	III. 노인개인특성 A. 가구형태 및 (손)자녀· 배우자와의 관계 B. 부모, 형제·자매, 친인척, 친구·이웃과의 관계 C. 자녀·부모와의 부양의 교 환	- 조사 내용 축소 • 활용도가 낮은 손자녀, 형제·자매 및 친인척, 친 구·이웃과의 지원 삭제- 주요 관계 및 접촉실태 파악과 자원의 교환으로 분리하여 구성
	B. 함께 사는 자녀와의 관계 및 지원		
	C. 따로 사는 자녀와의 관계 및 지원		
	D. 손자녀와의 관계 및 지원		
	E. 부모와의 관계 및 지원		
	F. 배우자와의 관계 및 지원		
	G. 형제·자매 및 친인척, 친구 이웃과의 관계 및 지원		
	L. 건강상태	D. 건강상태	- 축소
	M. 건강형태	E. 건강형태	- 수정 보완 - 단, 운동실태 파악 단순화 및 포괄성 증대
N. 의료서비스 이용	-	- 삭제	
O. 일상생활수행능력과 간병	F. 일상생활수행능력과 간병	- 유지	

2008년		2011년	비고
	수발	수발	
Q. 신체기능		G. 신체기능	- 응답자 부담이 적은 척도로 변경
H. 소득		I. 경제상태	- 응답자 부담 저하를 위하여 소득 항목을 중범위로 통합
I. 생활비와 용돈			
J. 자산과 부채			
K. 경제활동		H. 경제활동	- 대부분 유지 • 단, 최근 사직한 일 관련 항목 삭제
R. 여가 및 사회참여		J. 여가 및 사회활동	- 수정보완 - 여가활동 구체화
S. 노인복지서비스		K. 노인복지서비스	- 정책변화 반영
T. 노후 생활과 삶의 질		L. 노후 생활과 삶의 질	- 수정보완, 일부항목(자살) 추가
U. 생활환경		M. 생활환경	- 수정보완
P. 인지기능		N. 인지기능	- 치매선별검사 유지 - 기억력 항목 삭제

II. 주요 조사 결과: 노인(65세 이상)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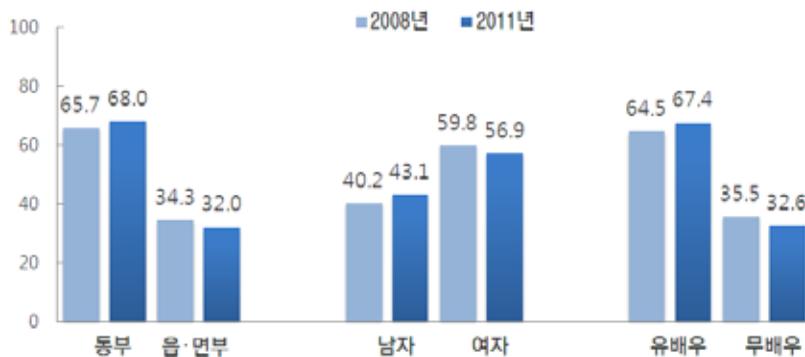
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

□ 노인의 약 2/3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노인 중 80대 이상이 17.3%를 차지하고 있고 노인의 평균연령은 73.7세임.

○ 즉 평균수명의 증대 등으로 인하여 후기노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상대적으로 활동성이 높은 60대의 노인도 약 30%에 달하고 있는 등 노인 내에서도 다양성이 나타날 것임을 추측할 수 있음.

〈 노인의 일반적 특성 변화(2008-2011) 〉



□ 노인의 일반특성 중 특히 노인의 교육수준과 거주형태에 주목해야 할 것임.

○ 노인의 31.6%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1994년의 65.4%, 2004년의 40.1%에 비하여 감소한 것임.

- 한편 중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노인의 비율도 25.9%이며, 전문대 이상의 학력자도 6.9%에 달하는 등 1994년의 8.1%와 2.7%, 2004년의 19.4%와 5.6%에 비하여 증가한 것임.

〈 교육수준의 변화(1994-2011) 〉



○ 또한 노인의 거주형태에 있어 큰 변화가 발견되었음.

- 전체 노인 중 노인독거는 19.6%, 노인부부 48.5%, 자녀동거 27.3%, 기타 4.6%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노인단독가구에서 생활하는 노인이 68.1%에 달하고 있음.
- 이러한 노인단독가구 비율은 1994년의 40.4%, 2004년의 55.0%에서 급증한 것임.
- 이러한 노인단독가구의 비중은 동부지역이 62.9%인데 비하여 읍·면부는 79.1%로 지역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가구형태의 변화(1994-201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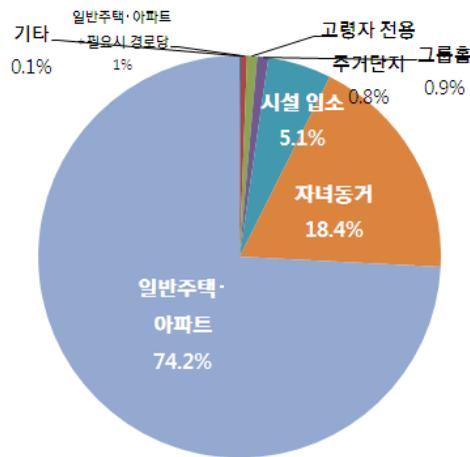
○ 자녀와 동거하는 이유와 단독가구로 생활하는 이유가 다양화되고 있음.

- 단독가구 이유로는 내가 경제적 능력이 있어서, 개인(부부)생활을 향유하기 위해서 등의 자발적인 이유가 39.7%이며, 자녀의 결혼, 자녀가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등 상황적 요인에 의한 것이 60.3%임.
- 한편,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경우 주요 이유로는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규범적 이유가 28.4%, 자녀에게 가사지원·손자녀 양육 등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가 21.7%,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 20.9%의 순임.

□ 노인이 앞으로 선호하는 거주형태를 살펴보면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에 단독가구로 생활하고 싶다는 응답이 74.2%로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음.

○ 자녀와 동거하겠다는 응답은 18.4%에 불과하며, 그 다음이 노인시설 입소로 5.1%, 그룹홈 생활 0.9%, 고령자 전용 주거단지가 0.8% 등임.

〈 향후 거주 희망형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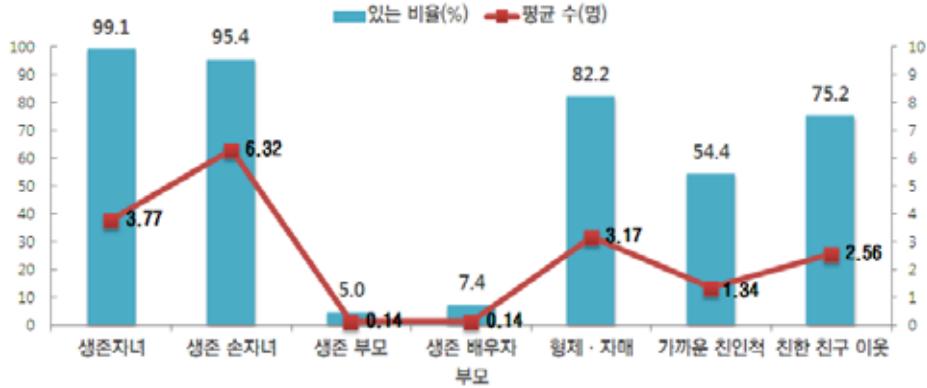


2. 노인(65세 이상)의 가족 및 사회관계의 현황

가. 가족 및 사회관계의 규모

- 노인의 가족 및 사회관계의 규모를 살펴보면, 노인의 대부분인 99.1%가 생존자녀가 있으며 이들의 평균자녀수는 3.77명, 95.4%는 손자녀를 두고 있고 생존손자녀수는 6.32명임.
 -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이 형제·자매로 82.2%가 형제·자매가 있으며 평균 형제·자매수는 3.17명임.
 - 가까운 친인척의 경우는 54.4%로 약 절반 정도의 노인만이 가깝게 지내는 친인척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들의 평균 가까운 친인척수는 1.34명임.
 - 한편, 부모의 경우는 본인 부모는 5.0%가, 배우자의 부모는 7.4%가 생존한 부모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음.
 - 한편 친구·이웃의 경우 고민과 상담을 할 수 있는 가까운 친구·이웃이 있다는 비율이 75.2%이며 평균 규모는 2.56명으로 나타났음.
- 한편, 이러한 가족 및 사회관계의 작동 실태를 왕래 및 연락빈도를 통하여 살펴보면, 노인의 약 1/3 정도가 비동거 자녀와 월 1회 정도의 왕래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2,3회 정도의 연락을 주고받고 있음.
 - 또한 일반적으로 주1회 정도의 연락과 월1회 정도의 왕래는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노인의 대부분이 손자녀를 두고 있지만 손자녀와의 왕래는 일반적으로 자녀를 통한 간접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자녀방문 시 동행하는 형태를 갖게 됨.
 - 그 결과 손자녀와의 왕래나 연락빈도는 자녀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가족 및 사회관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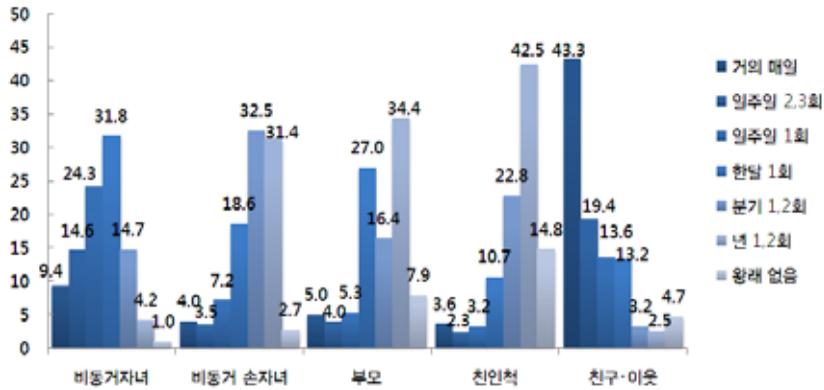


나. 왕래 및 접촉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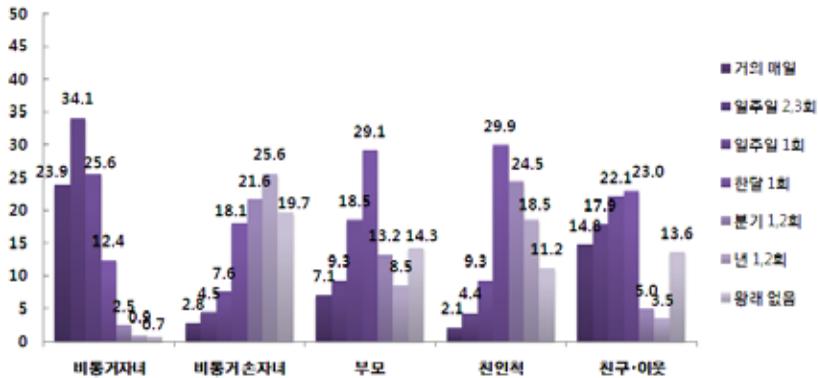
- 한편 부모와의 접촉 실태를 살펴보면 14.3%만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왕래를 하고 있는데 이는 비동거 자녀에 비하여 월등히 낮은 수준이며 손자녀와는 비슷한 수준임.
- 년 1,2회 왕래한다는 응답이 34.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빈도이다. 친인척이 없는 노인은 없지만 친하게 지내는 친인척이 있는 노인은 약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친인척과의 접촉 또한 직계와의 교류에 비해서는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친구·이웃의 경우 약 40%대의 노인이 매일 이들과 왕래를 하고 있다고 응답을 하고 있으며 약 절반 정도가 일주일에 1회 이상의 연락을 주고받고 있음.
 - 이는 비동거자녀에 비하여 접촉빈도는 활발한 반면 연락빈도는 낮은 것으로, 대면 접촉에 있어 친구·이웃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친구·이웃과 전혀 왕래가 없다는 응답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약 5%정도가 있어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며, 연락이 전혀 없는 노인도 약 14%로 이들이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친구·이웃과의 왕래에 있어서 지역별 차이가 매우 큼.
 - 읍·면부 거주 노인의 63.0%가 거의 매일 친구·이웃을 만나고 있는데 비하여 동부 거주 노인의 경우는 그 비율이 34.0%에 불과하며

- 동부 거주 노인의 6.3%는 전혀 친구·이웃과의 왕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왕래 빈도 〉



〈 접촉 빈도 〉



다. 부양의 교환

- 동거 및 비동거자녀, 부모, 배우자와의 각종 부양의 교환 실태를 살펴보면 동거자녀의 경우 정서적 부양 수혜율이 64.8%이며 제공률은 59.8%임.
- 정서적 도움을 주는 것보다 받은 비율이 5%포인트 높지만 대체적으로 50~60% 정도의 노인이 정서적 도움을 주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소·식사준비·세탁 등의 경우도 수혜율이 59.2%이며 제공률은 61.7%이고, 간병·수발·병원 동반 등의 경우는 수혜율이 62.3%인 반면 제공률은 27.9%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노인과 자녀간의 비교적 활발한 도움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발의 경우 부모의 노화나 건강상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제공보다는 도움을 받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임.
- 한편 경제적 부양의 교환실태를 살펴보면 정서적 도움이나 도구적 도움과는 달리 노인이 자기보다는 받는 방향의 교환형태를 보이고 있음.
 - 즉, 비정기적인 현금지원이나 현물지원이 활발하여 각각 74.6%와 76.6%의 노인이 이러한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한 반면 노인이 동거자녀에게 비정기 현금지원을 한 경우는 27.0%, 현물지원을 한 경우는 45.4%임.
 - 또한 정기적인 현금지원의 경우 40.8%가 동거자녀로부터 지원을 받은 반면 노인의 4.6%만이 동거자녀에게 지원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도 일방적으로 경제적 부양을 받기 보다는 노인도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형태가 있다는 점에서 동거실태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비동거자녀의 경우는 정서적 지원 수혜율이 70.2%이며 제공률은 61.4%로 제공률보다 수혜율이 높음.
 - 이러한 정서적 도움의 교환은 동거자녀의 경우에 비하여 조금 높은 것으로 비동거자녀가 다수인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임.
 - 한편 도구적 도움의 경우는 수혜율이 46.1%이지만 제공률은 11.3%로 매우 큰 차이를 보임.
 - 이는 동거자녀의 59.2%와 61.7%와 큰 차이를 보이는 현상임. 노인에 대한 자녀로부터의 도구적 도움의 제공은 동거하는 경우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비동거자녀도 방문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거 여부에 따른 차이는 적지만, 노인이 도구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노인이 비동거 자녀의 집을 방문하여 제공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동거 여부에 따른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보임.

- 수발의 경우 수혜율이 49.2%이며 제공률이 7.7%인데 이 또한 가사노동과 관련된 도움의 경우와 유사함.
- 한편 경제적 도움의 경우 정기적인 현금지원 수혜율이 37.0%, 비정기적인 현금지원 수혜율이 93.0%이며 현물지원도 90.6%로 매우 높음.
 - 이는 동거자녀의 경우 동 비율이 40.8%, 74.6%, 76.6%인 것에 비해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 이 또한 비동거 자녀가 다수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정기적인 현금지원의 경우는 동거와 비동거 자녀간의 차이가 적은 편이지만 비정기적인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은 약 20%포인트 내외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함께 생활하지 않는 자녀의 경우 방문시 또는 명절 등에 현금 또는 현물로 선물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이해됨.
 - 또한 노인이 비동거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실태를 보면 정기 현금지원이 0.9% 비정기 현금지원 23.7%, 현물지원이 58.5%로 동거자녀의 4.6%, 27.0%, 45.4%와 상이한 양상을 보임.
 - 즉 정기적인 현금지원은 동거자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정기 현금지원은 큰 차이가 없고, 현물지원은 비동거자녀에게 조금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경제적 지원의 유형에 따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음.
- 생존해 있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있는 경우 정서적 지원 수혜율은 23.3%, 제공률은 37.5%로 자녀에 비하여 그 수준이 낮으며, 수혜율에 비하여 제공률이 높아 정서적 지원은 아래세대에서 윗세대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도구적 부양과 경제적 부양 또한 부모로부터 받는 경우는 소수이고 노인이 부모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배우자의 경우는 정서적 지원은 80%대의, 도구적 도움은 70%대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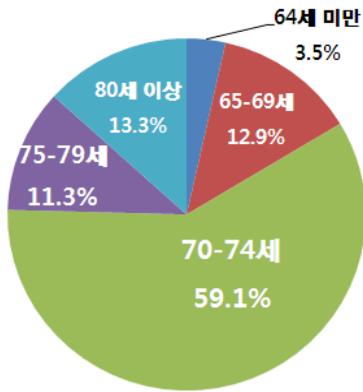
(노인의 비동거자녀 전체와의 부양의 종류별 교환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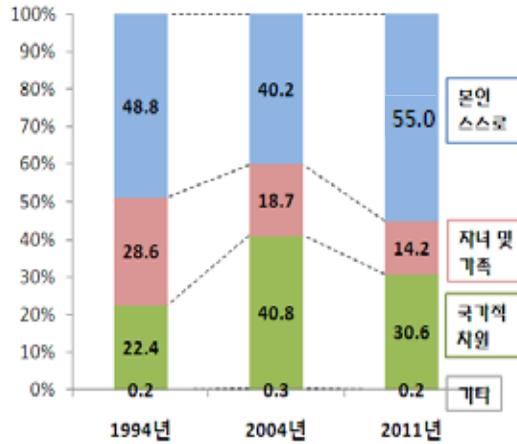
3. 노인(65세 이상)의 가치관 및 삶의 만족도

- 노인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기준을 살펴보면 70~74세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59.1% 임. 다음이 80세 이상 13.3%, 65~69세가 12.9%, 78~79세 11.3%의 순임.
- 60세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0%이며, 60~64세는 3.4%로 소수임.
 - 즉 통상적으로 노인으로 정의되는 65세는 더 이상 노인들에게는 노인의 연령기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임.
- 한편 노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을 살펴보면 본인 스스로가 가장 높아 55.0%이며, 국가적 차원이 30.6%, 자녀 14.2%, 기타 0.3%로 전반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해결하는 것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높게 나타났음.
 - 또한 노후의 자녀동거 부양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27.6%만이 자녀와 동거해야 한다는 생각을 표명하고 있어 노후에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노인이 약 1/4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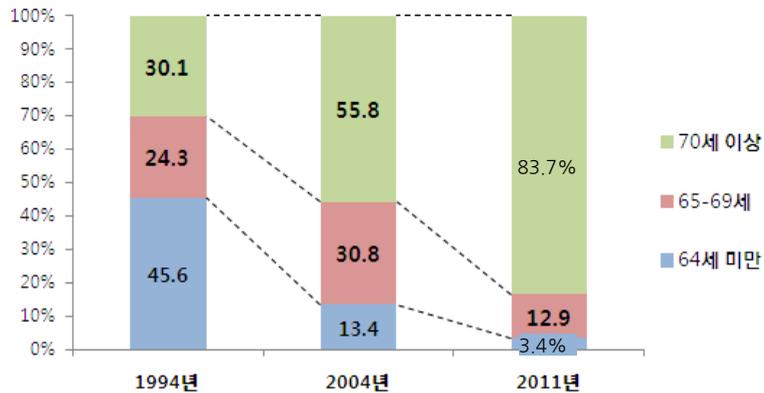
〈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



〈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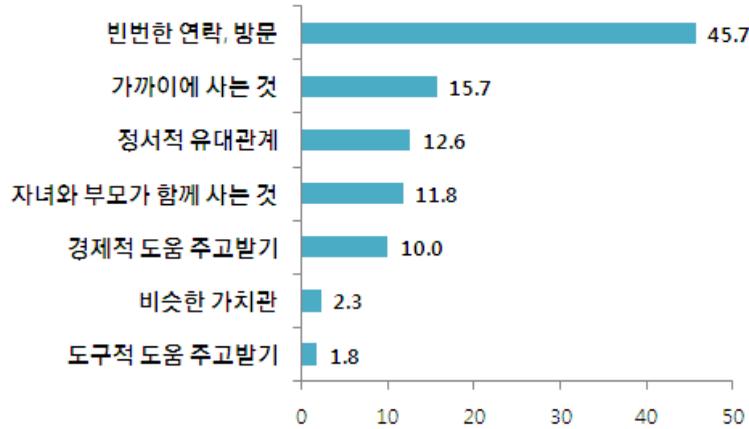
〈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의 변화 〉



□ 노후 자녀와 부모의 좋은 관계를 위해 중요한 것으로는 자주 연락하고 방문하는 것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45.7%에 달하고 있음.

○ 다음은 가까이에 사는 것(15.7%), 정서적 유대관계(12.6%),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사는 것(11.8%), 경제적 도움 주고받기(10.0%), 비슷한 가치관 (2.3%), 도구적 도움 주고받기(1.8%) 등의 순임.

〈 노후 자녀와의 좋은 관계유지에 중요한 것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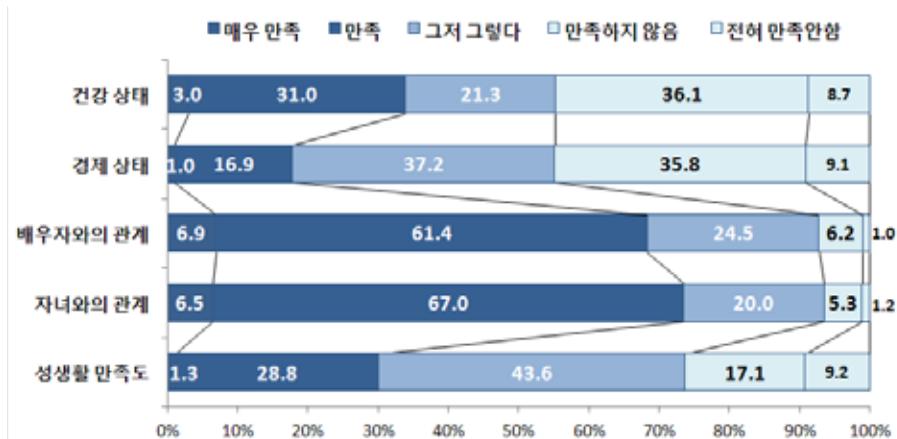


- 재산 처리 방식에 있어서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50.8%), 장남에게 더 많이(16.0%), 경제적 사정이 나쁜 자녀에게(9.1%), 자신(배우자)를 위해(9.0%), 장남에게만(7.3%), 효도한 자녀에게(3.8%), 사회환원/가족과 사회상속 및 환원(2.6%), 딸 제외 아들에게만 골고루(1.2%)의 순으로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재산을 처리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50.8%를 차지함.
- 노인 본인이 희망하는 장례방법으로는 화장이 가장 선호되고 있어 60.2%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매장으로 25.6%임.
 - 또한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응답도 13.1%로 아직 본인의 죽음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노인도 일정 규모가 되고 있음.
 - 시신기증의사를 밝힌 노인은 1.0%에 불과함.
-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건강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응답은 34.0%, 경제상태에 대해서는 17.9%, 배우자와의 관계는 68.3%, 자녀와의 관계는 73.5%로 비교적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가족관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전체 노인의 성생활 관련 만족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43.6%가 성생활 만족에 그저 그렇다로 응답하였고, 매우 만족한다가 1.3%, 만족하고 있다가 28.8%로 30.1%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음. 한편 만족하지 않는다가 17.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가 9.2%로 26.3%가 부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어 성생활관련 노인의 만족도는 매우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성생활 상담의 필요성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0.4%, 그런편 5.1%, 그저 그렇다 11.3%, 그렇지 않은 편 38.9%, 전혀 그렇지 않다 44.3%로 5.5%의 노인만이 성생활 상담 서비스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어, 노인의 성생활 상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영역별 삶의 만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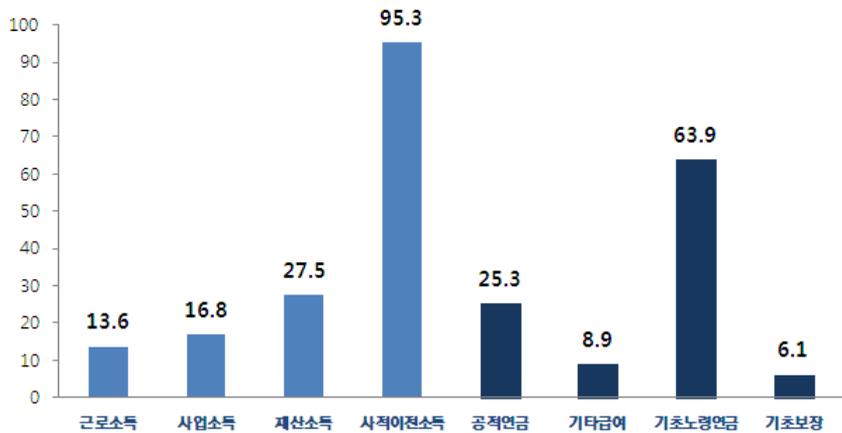


4. 노인(65세 이상)의 경제상태

- 노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41.3만원으로 노인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주거관련비 지출(43.0%)이며, 다음이 보건의료비(24.7%), 식비(12.0%)의 순서임.
- 노인의 평균 가구소득은 2,161.8만원으로 월 180.2만원이었으며, 소득구성 특징을 보면 사적이전소득이 26.5%로 가장 많고, 공적이전소득 25.2%, 근로소득 23.5%, 사업소득 14.4%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한편 노인들의 생활비 주부담자는 (손)자녀 및 배우자(이하 (손)자녀)가 39.5%로 가장 많고, 본인 스스로(이하 본인) 34.7%, 배우자 17.5%, 정부 및 사회단체 7.7%(이하 정부) 임.

- 또한 용돈의 경우 또한 (손)자녀 34.2%, 본인 스스로 31.6%, 정부 및 사회단체 27.6%, 배우자 6.2% 순으로, 생활비 부담과는 달리 정부 및 사회단체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노인의 개인소득원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노인이 사적이전소득을 갖고 있지만 개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8%에 불과함.
- 즉,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이 13.6%, 사업소득 16.8%, 재산소득 27.5%, 사적이전소득 95.3%, 공적이전소득인 공적연금 25.3%, 기타급여 8.9%, 기초노령연금 63.9%, 기초보장 6.1% 등임.

〈 노인개인소득의 소득원별 소유율 〉



- 노인개인소득은 연간 849.6만원으로 사적이전소득 39.8%, 공적이전소득 32.5%, 사업소득 9.5%, 재산소득 9.0%, 근로소득 7.4%, 기타소득 1.4%, 기타수입 0.3%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적연금의 경우 1994년의 2.9%, 2004년의 14.4%에 비하여 그 비율이 매우 높아진 것임.

〈 개인소득의 소득원별 규모 및 구성 〉



- 부동산 소유율은 58.5%로 평균 1억 3,760만원이며, 75.4%가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데 그 규모는 1,624.5만원임.
- 한편 노인의 20.0%가 부채를 갖고 있으며 평균 부채의 규모는 1,148.5만원임.
- 주관적인 생활수준은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6.0%에 불과하며 46.6%는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5. 노인(65세 이상)의 건강 및 기능상태

가. 건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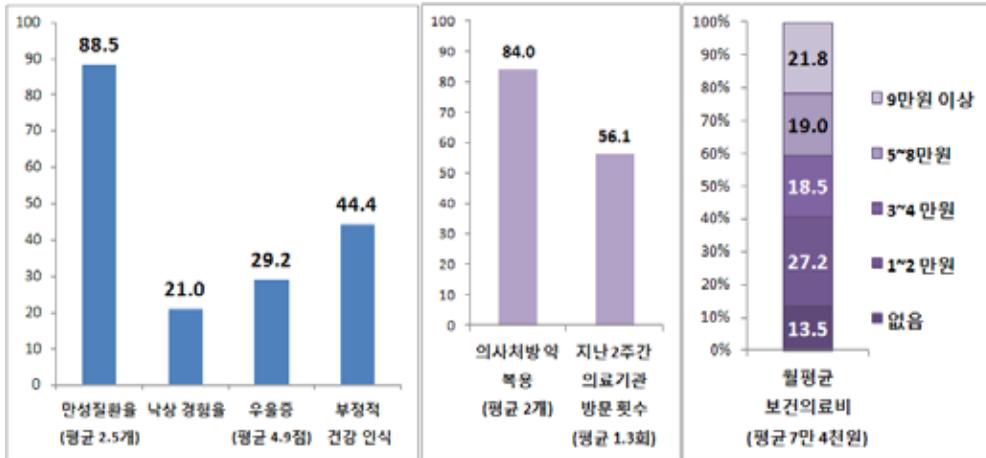
- 노인의 88.5%가 만성질환에 이환되어 있었으며, 만성질환 수는 평균 2.5개로 만성질환을 2개 이상 지니고 있는 복합이환자도 68.3%나 되었음.
 - 노인이 3개월 이상 앓고 있다고 보고한 만성질환 중 고혈압이 54.8%로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였으며, 이어서 관절염, 당뇨병, 요통 및 좌골신경통, 골다공증, 고지혈증 등의 순서임.
- 노인의 21.0%가 지난 1년간 낙상을 경험하였고, 이 중 72.4%는 낙상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노인의 47.4%는 낙상으로 인한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음.
 - 낙상을 경험한 장소는 도로 또는 공원 등 실외가 56.0%로 가장 많았고, 노인의 75.7%가 평소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음.

- 정신건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노인의 29.2%는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상(8점 이상인 경우)을 지니고 있으며, 우울정도(평균점수)는 15점 만점에 4.9점임.
- 노인의 특성별로는 여성(33.6%)이 남성(23.3%)에 비해 우울증상률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우울증상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즉 65~69세 연령군에서 19.1%인데 비해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43.0%로 2배 이상의 차이가 나타났음.
 - 또한 소득이 낮을수록 우울증상률이 높은 경향을 보여, 가구소득이 최저 20%인 집단에서는 동 비율이 47.1%로 가장 높음.
- 노인의 44.4%가 자신의 평소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35.0%는 동년배에 비해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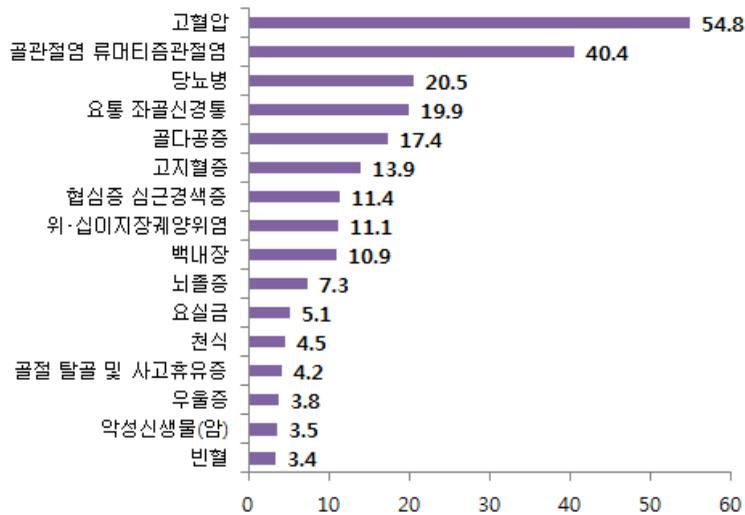
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처방약을 현재 3개월 이상 복용하고 있는 노인은 전체의 84.0%로 다수가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복용하고 있는 처방약의 종류는 2.0개임.
- 노인 중 56.1%가 최근 2주간 병원, 의원, 보건(지)소, 한의원 등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고, 노인의 86.5%가 본인부담 보건의료비를 지출하였으며, 월평균 지출액수는 7만 4천원임.
- 지난 1년간 방문건강관리 및 가정간호서비스 이용률은 7.8%이며, 이용자의 연간 서비스 이용횟수는 6.6회임.
- 노인의 지난 1년간 노인건강증진 및 건강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율은 12.6%이며, 프로그램 참여 장소별로는 보건소(보건지소)가 59.7%로 가장 많음.

〈 노인의 건강상태 및 의료이용 실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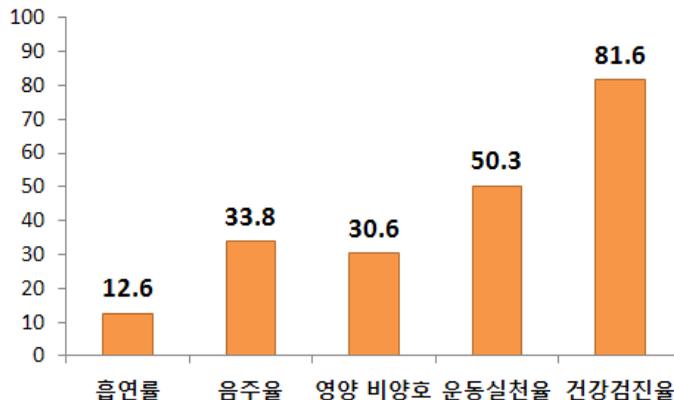
〈 만성질환 유병률 〉



다. 건강행태

- 다양한 건강행태를 살펴보면 흡연상태의 경우 노인의 12.6%가 현재 흡연을 하고 있으며, 과거흡연자는 25.9%, 비흡연자는 61.5%임.
- 현재 음주자가 노인의 33.8%를 차지하였으며, 이중 적정음주자(1주일에 7잔 이하)는 20.4%, 과음주자는 13.4%임.
- 노인의 30.6%가 영양관리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노인의 50.3%가 현재 운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권장수준(1주일에 150분 이상)에 미치는 운동을 하는 경우는 39.1%임.
- 노인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6.7시간으로 적정수면시간인 6~8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경우는 45.2%임.
- 지난 2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노인은 전체노인 중 81.6%임.
- 이러한 건강행태 중 영양관리상태, 운동실천율, 적정수면율, 건강검진 수진율 등에 있어 여자, 고령, 저학력, 저소득,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상태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건강행위를 종합해보면 음주(2004년 34.1%, 2008년 32.2%)는 큰 변화가 없고, 흡연율(2004년 17.6%, 2008년 13.6%)은 소폭 감소한 것이며, 건강검진율과 운동실천율은 2004년의 52.0%와 39.6%에 비하여 월등히 증가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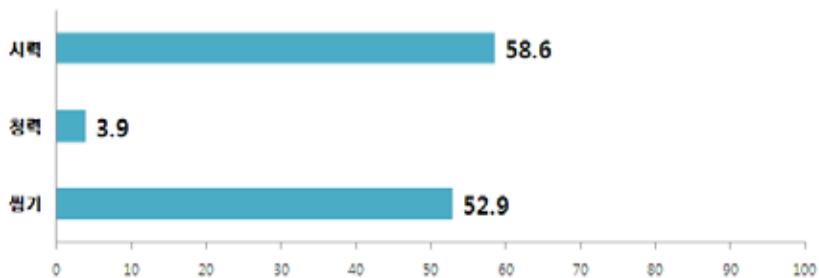
〈 노인의 건강생활양식 〉



라. 기능상태 및 수발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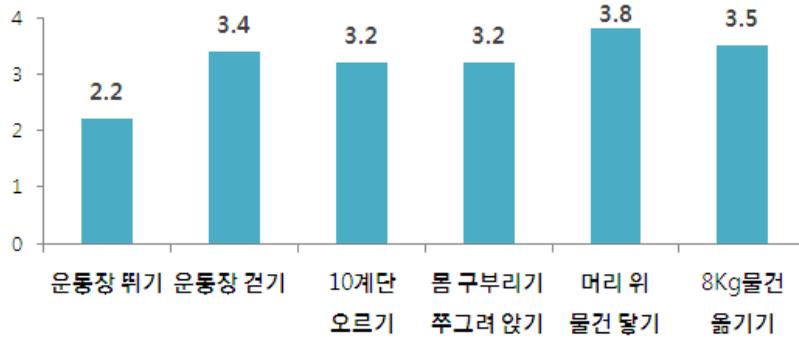
- 노인의 29.4%가 시력이 나쁘며, 20.5%가 청력이 나쁨.
 - 이에 비하여 씹기 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이 많아서 54.1%에 달하고 있다. 씹기의 경우 특히 보조기를 사용하는 비율이 52.9%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상태가 불편한 노인의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보조기 사용 실태 〉



- 노인의 몸무게와 키를 활용한 BMI지수를 통해 비만도를 살펴보면, 노인의 5.5%는 저체중이며, 41.4%는 정상, 25.1%는 과체중, 25.5%가 경도비만, 2.5%가 중증도 비만임.
 - 노인의 경우 과체중 이상의 비만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의 23.9%가 하지 근력의 수행능력이 없음.
- 신체근력상태의 평균점수는
 - 각 항목별로 어렵지 않다는 4점, 전혀 할 수 없다는 1점으로 평균점수를 계산한 결과
 - 머리 위 물건달기가 3.8점으로 가장 높고 운동장 뛰기가 2.2점으로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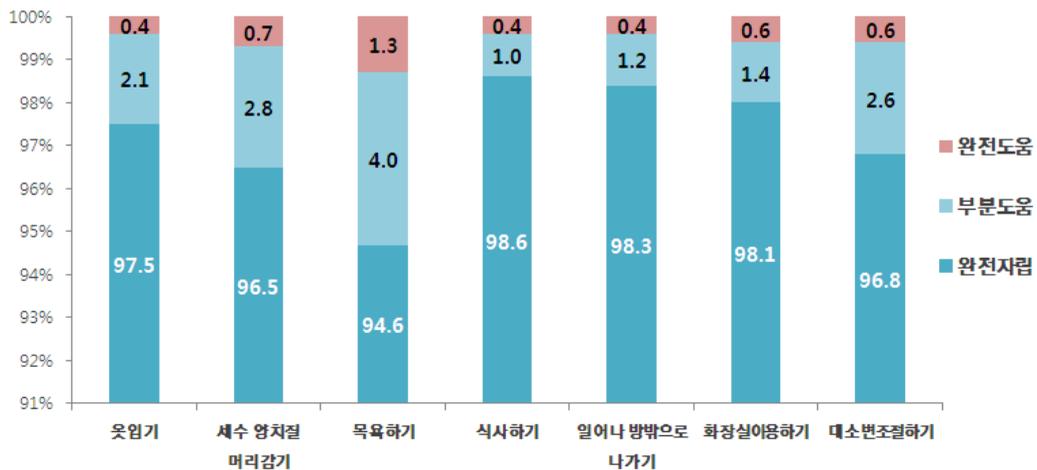
〈 신체적 수행능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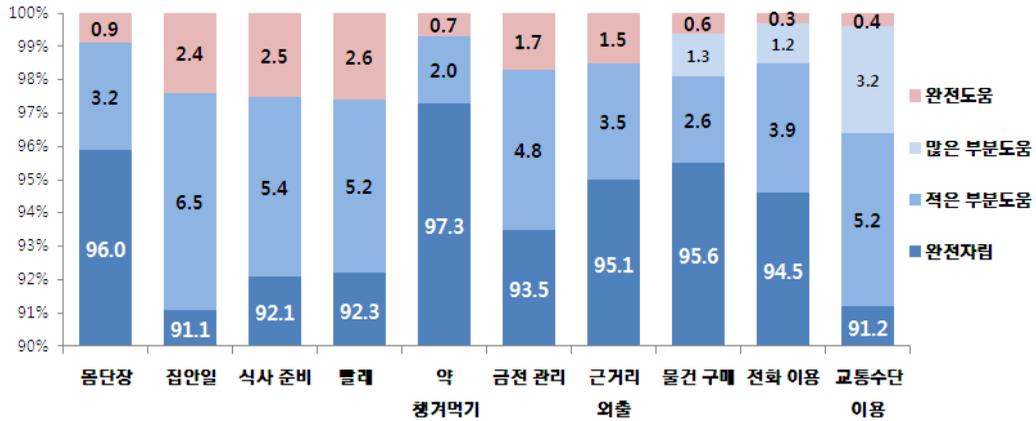
□ 7.2%가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의 7개 항목 중 1개 이상 제한이 있으며, 13.8%가 10개의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에 1개 이상 제한이 있음.

○ 이를 종합하면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모두 제한이 없는 노인이 85.1%이며,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만 제한이 있는 노인이 7.7%, 일상생활수행능력(ADL)도 제한을 경험하고 있는 노인이 7.2%임.

〈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기능상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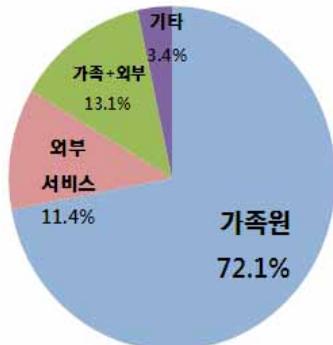


〈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기능상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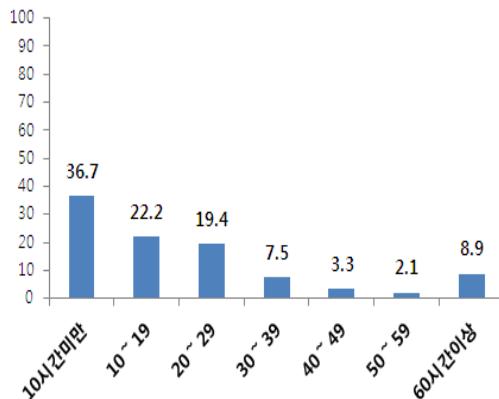


- 이들 기능상태의 제한을 경험하고 있는 노인 중 76.3%가 수발을 받고 있는데, 수발율에 있어 남녀차이가 매우 커 남자노인은 87.4%인데 비하여 여자노인은 70.9%에 불과함.
- 수발자로는 가족원이 72.1%로 가장 높으며, 외부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11.4%, 가족과 외부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13.1%이다. 즉 수발을 받는 노인 중 외부서비스를 받는 비율이 24.5%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상당부분 증가한 것임.
- 이러한 외부서비스 의존율은 독거노인에게서 높아 41.7%에 달함.

〈 수발 제공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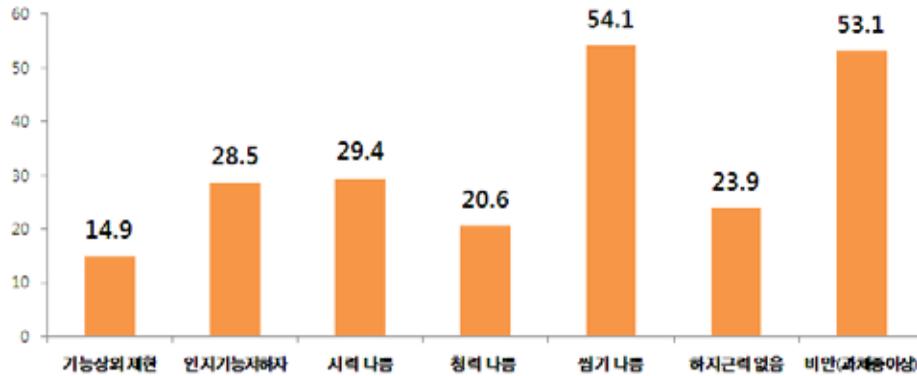


〈 수발 시간 〉



□ MMSE-KC를 활용한 인지기능저하자를 산출한 결과 응답자의 28.5%가 인지기능 저하자로 나타났다.

〈노인의 기능 및 신체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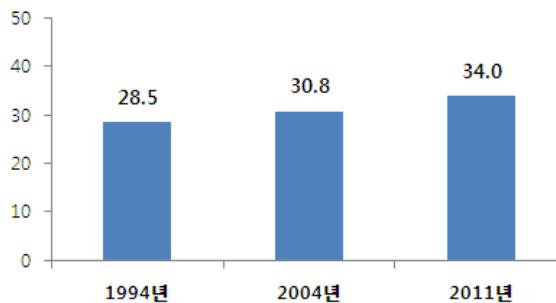


6. 노인(65세 이상)의 경제활동 실태 및 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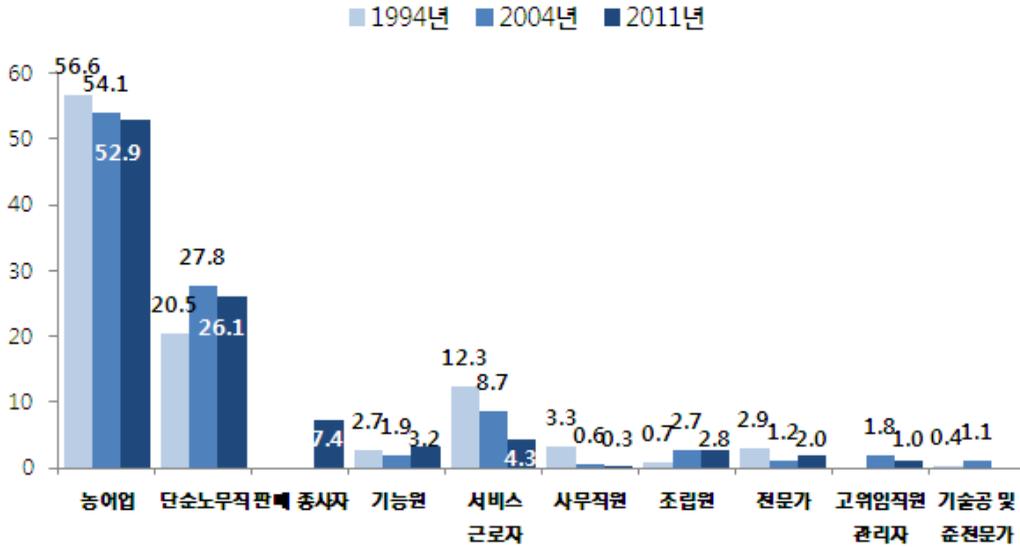
□ 노인의 대부분인 90.7%가 일을 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이 평생 가장 오래 종사한 직업은 일차산업업.

□ 현재 노인의 34.0%가 취업중이며 이들의 52.9%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음.

〈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1994-201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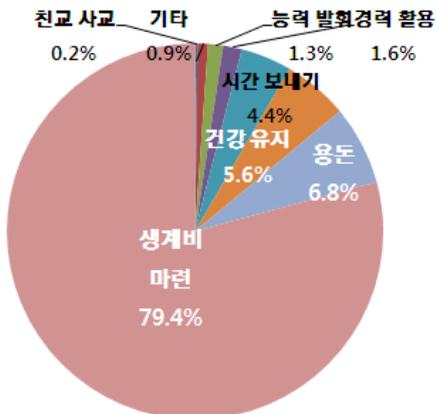
〈 근로직종 변화(1994-201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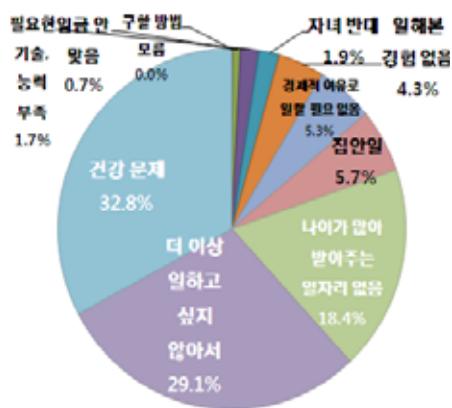
□ 이들이 일을 하는 주요 이유는 생계비 마련으로 79.4%에 달하고 있음.

○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노인의 미취업 이유로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32.8%,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가 29.1%, 나이가 많아서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가 18.4%의 순임.

〈 일을 하는 이유 〉



〈 일을 하지 않는 이유 〉



-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의 대부분인 88.5%가 향후도 일을 하고 싶어하고 있음.
- 또한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는 노인의 12.9%는 향후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데, 취업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계비 마련으로 53.9%임.
 - 이들은 이전 종사 직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41.6%) 다음은 사회공헌용 일자리 참여로 34.0%임.
 -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의 32.1%는 지난 1년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30.3%는 동사무소,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였고, 21.1%는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 구직노력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

〈 경제활동 희망 이유 〉



- 이상과 같은 현재 경제활동과 향후 경제활동 의사와의 일치율을 살펴보면 노인의 29.9%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일을 계속할 의향이 있으며, 3.9%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는 있으나 향후에는 일할 의향이 없는 반면, 8.6%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에 할 의사가 있고, 57.7%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할 의향이 없음.
 - 즉, 약 30%의 노인이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도 현재 경제활동을 할 의향을 갖고 있어 경제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음.
 - 일자리 개발과 기회제공에 있어 경제활동을 희망하지만 현재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8.6%의 노인에게 정책적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할 것임.

- 이러한 노인의 비중은 도시지역, 남자노인,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현재 경제활동 실태와 향후 경제활동 의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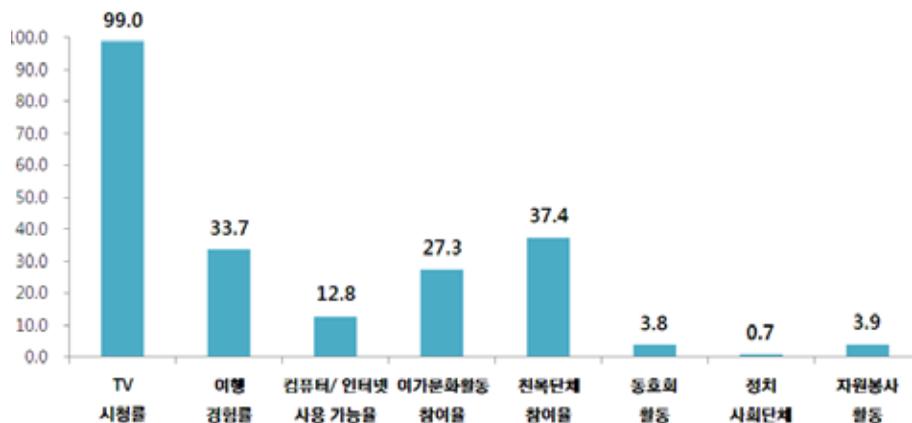


7. 노인(65세 이상)의 여가·사회참여 실태 및 욕구

- 노인에게 있어 가장 보편적인 여가활동은 TV로 노인의 99.0%가 TV를 시청하였고, 평균 TV시청 시간은 3.8시간 등으로 많은 시간을 소극적인 여가 활용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알 수 있음.
- 지난 1년간 응답자의 33.7%가 여행을 하였고, 1회가 51.8%, 2회 26.1% 등으로 여행을 선호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음.
- 노인 중 컴퓨터 및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자는 12.8%에 불과하여 정보화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 핸드폰 소유실태는 일반핸드폰은 71.3%, 스마트폰은 0.4%로 전체노인의 2/3이상은 소유하고 있음.
- 정규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학습교육(평생교육프로그램)에 현재 참여율은 6.7%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향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희망률은 14.7%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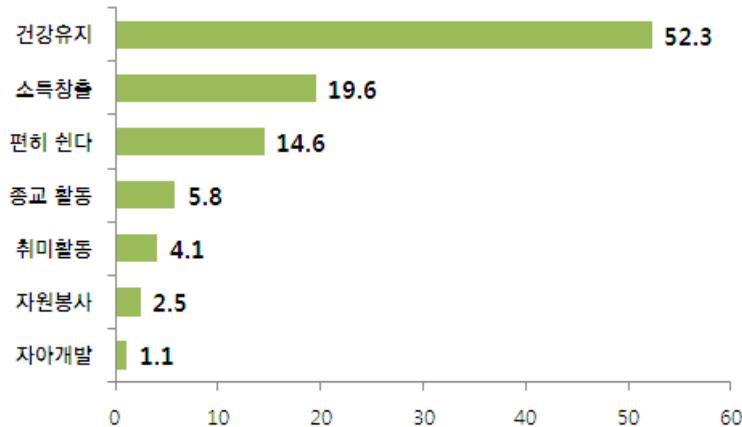
- 지난 1년간 이러한 TV시청, 여행, 컴퓨터·인터넷, 배우기(평생교육), 운동하기 이외의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한 노인은 27.3%이며, 가장 주된 활동으로는 화투·카드가 26.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등산 10.5%, 화초가꾸기 10.4%, 책읽기 9.9%, 노래부르기/노래교실 8.2%, 바둑·장기·체스 7.4%, 산책 7.0% 등의 순임.
- 이러한 여가문화활동 현황을 종합하면 여행, 컴퓨터·인터넷, 배우기(평생교육), 운동하기와 같은 여가문화활동도 포함한 여가문화활동까지 포함할 경우 72.2%임.
- 전반적인 본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정도를 살펴보면 매우 만족한다 4.4%, 만족한다 33.6%, 그저 그렇다 31.9%, 만족하지 않는다 22.8%,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7.2% 등으로 38.0%는 긍정적이고, 30.0%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음.
- 한편, 사회단체참여의 경우, 참여율이 친목단체활동 37.4%인데 비하여 동호회(클럽)활동(3.8%)과 정치사회단체(0.7%) 참여는 매우 낮은 수준임.
-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노인이 3.9%에 불과하며 9.9%만이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 의향을 갖고 있음.
- 노인은 노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홍보라는 응답이 47.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장소 등에 관한 정보 제공 25.3%, 다양한 노인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18.9%, 노인 자원봉사자 지원 확대 8.7% 등의 순임.

〈노인의 다양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실태〉



- 본인의 노후(여생) 향유 방법으로는 건강유지를 하면서 보내고 싶다는 응답이 52.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소득창출을 위한 일을 하면서 보내고 싶다 19.6%, 편안하게 쉬면서 보내고 싶다 14.6%, 종교 활동에 전념하면서 보내고 싶다 5.8%,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활동을 하면서 보내고 싶다 4.1%, 자원봉사와 같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보내고 싶다 2.5%, 학습과 같은 자아개발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보내고 싶다 1.1% 등의 순임.
- 즉 노후건강유지와 소득창출에 대한 욕구가 강함을 짐작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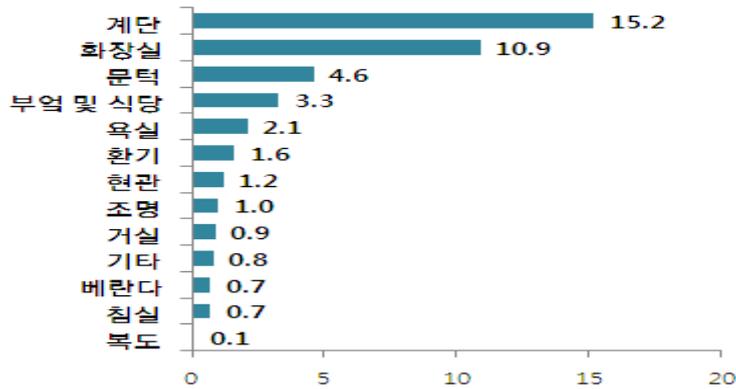
〈 희망하는 노후(여생)을 보내고 싶은 방법 〉



8. 노인(65세 이상)의 생활환경 및 생활실태

-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74.2%이며 55.7%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아파트 26.3%, 다세대 11.5%, 연립주택 3.8%, 상가주택 2.4% 순임.
- 즉 노인의 약 절반 정도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대표적인 주거환경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 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경우는 2.7%에 불과하며, 노인의 43.3%가 주택에 생활하기에 가장 불편한 공간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계단, 문턱과 같이 높낮이가 있는 부분과 화장실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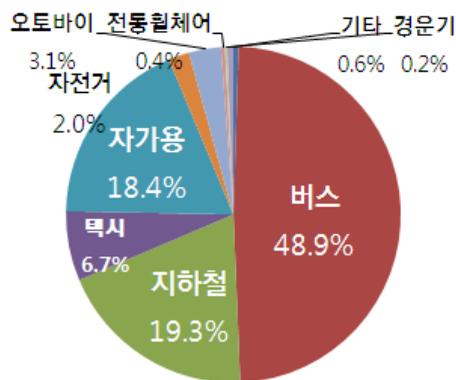
〈 불편한 공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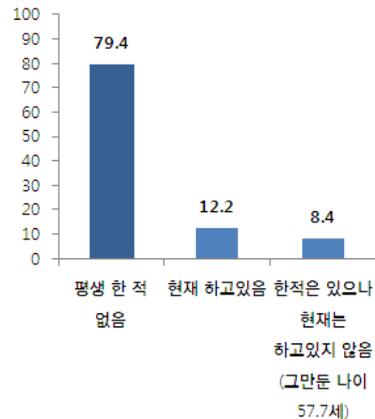
□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살펴보면 버스(48.9%), 지하철(19.3%), 자가용(18.4%) 순임.

- 즉 노인에게 있어 주요 교통수단은 버스이며, 특히 지하철이 없는 읍·면부에서는 버스의 중요성이 매우 높음.
- 또한 노인의 12.2%는 현재 운전을 하고 있으며, 8.4%는 과거에는 해보았으나 현재는 하지 않고 있으며, 79.4%는 평생 운전을 한 적이 없음.
- 외출시 불편한 점으로는 계단이나 경사로 오르내리기, 버스(전철)타고 내리기, 교통수단 부족 등이 많이 언급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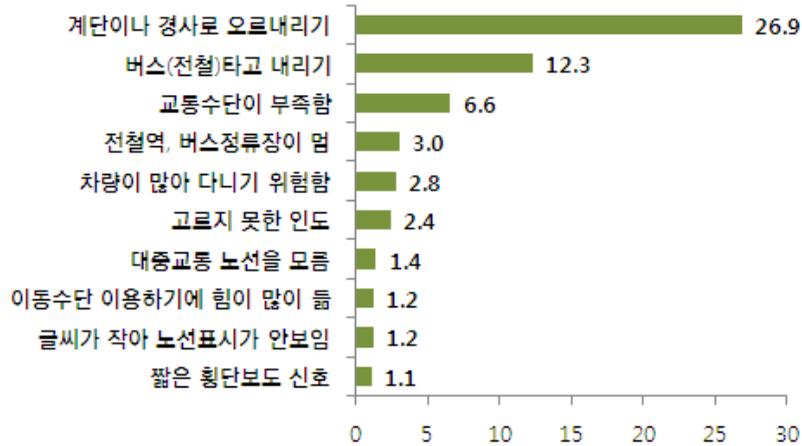
〈 주 이용 교통수단 〉



〈 운전 여부 〉



〈 외출시 불편한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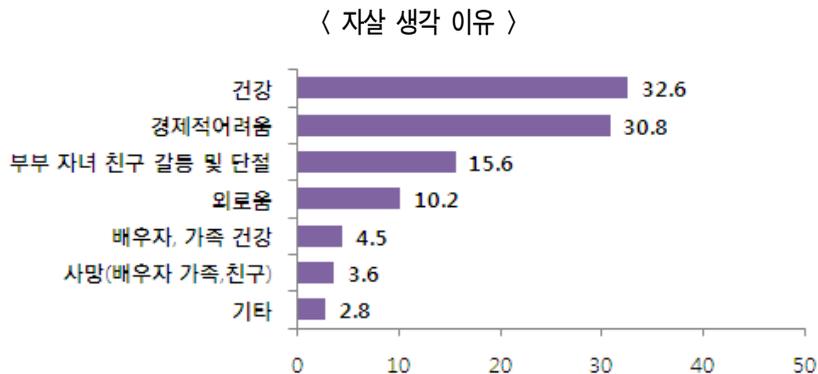
□ 안전사고(집안내 화재, 가스누출, 누수 등) 경험률을 살펴보면 전체의 4.9%가 경험하였고, 노인학대 경험률은 12.7%임.

○ 학대 경험실태를 학대유형별로 살펴보면 타인으로 부터의 신체적 고통(신체적 학대) 0.5%, 타인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감정이 상함(정서적 학대) 9.4%, 가족이나 보호자가 찾아오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음(방임) 2.5%, 타인으로부터의 금전적 피해(경제적 학대) 1.5%, 가족이나 보호자가 돌보아 주지 않음(방임) 1.4% 임.

〈 학대 종류별 경험율 〉



- 학대를 경험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노인보호전문기관·경찰·주민센터 등에 신고한다가 40.7%, 참는다가 36.3%, 가족이나 이웃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22.5%, 기타 0.6%순으로 응답하였다. 즉 노인이 학대 경험 시 대응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에는 다양성이 있음.
- 노인 중 11.2%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들 중 만 60세 이후 자살을 시도한 응답자는 11.2%이다. 즉 노인 중 실제 자살을 시도한 비율은 약 1.3%에 달하고 있음.
- 이들이 자살을 생각한 이유로는 건강이 32.6%, 경제적 어려움 30.8%, 부부·자녀·친구 갈등 및 단절 15.6%, 외로움 10.2%이 제일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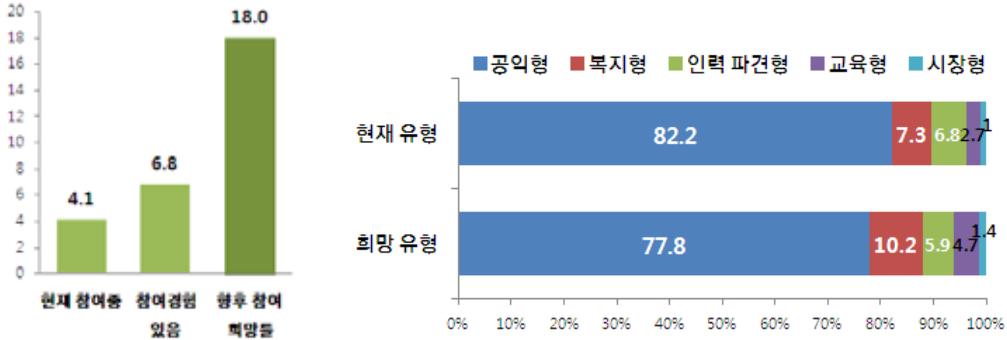


9. 노인(65세 이상)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욕구

가. 노인일자리 사업

-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68.8%가 인지하고 있으며, 4.1%가 현재 참여중이며 일자리 참여 경험이 있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6.8%에 달하고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경험 노인의 만족도는 매우 높아 74.8%가 만족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 한편 노인의 18.0%가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참여 욕구를 가진 노인의 욕구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노인일자리 사업관련 참여현황과 욕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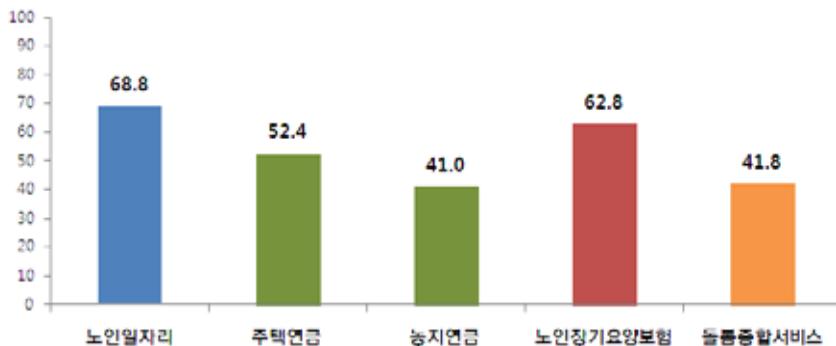
○ 향후 참여욕구를 가진 노인의 경우 77.8%가 공익형을, 10.2%가 복지형을, 5.9%가 인력파견형을, 4.7%가 교육형, 1.4%가 시장형을 희망한다고 응답하고 있음

- 이는 노인일자리 참여 경험자에 비하여 교육형과 복지형의 비중이 조금 높은 것임.

□ 노후소득과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경우 주택연금의 인지도가 52.4%로 농지연금 인지도인 41.0%보다 높는데, 이는 주택을 가진 노인이 농지 소유 노인보다 많고 제도 도입 시점이 빨랐기 때문으로 보임.

○ 활용할 농지가 없는 노인도 77.4%에 달하고 있어 농지연금은 적용범위가 좁다. 주택연금의 경우 응답자의 활용의사는 매우 다양하여, 32.4%는 활용할 주택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30.3%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 31.4%는 주택은 있으나 활용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였음.

〈 노인복지사업별 인지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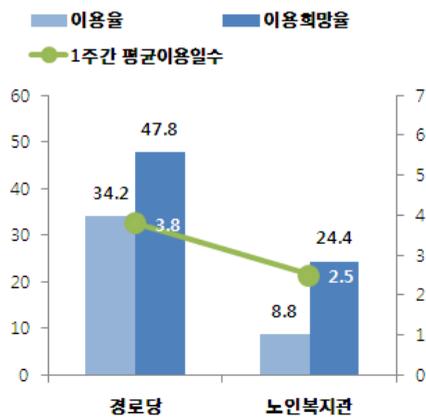


나.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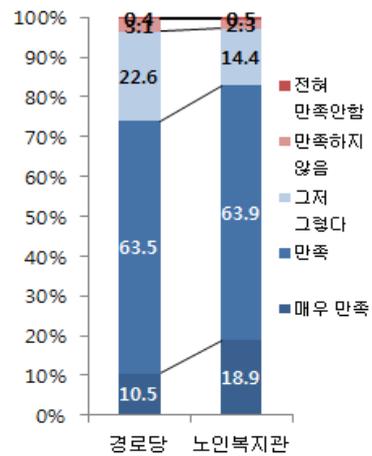
- 전국에 60,737개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의 경우 노인의 약 1/3인 34.2%가 이용하고 있고 향후 이용을 희망하는 노인은 47.8%로 현재 이용수준보다 향후 이용수준은 높아질 것으로 보임.
 -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경우 평균 이용일수는 주 3.8일로 나타났다. 이용이유로 가장 많은 것이 친목도모로 89.7%로 압도적이며, 다음이 식사서비스 이용과 여가프로그램 이용임.
 - 이는 경로당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고 공간만 제공되기 때문일 것임.
 - 한편 이용하지 않는 노인의 경우 미이용 이유로 가장 높은 것은 이용노인과 맞지 않아 서로 이 역시 불만이유와 동일하게 이용노인의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음.
 - 다음이 시간이 없어서와 몸이 불편해서, 이용하기에는 연령이 낮아서 등이 언급되고 있음.
- 노인복지관은 2010년 현재 259개가 있어 경로당에 비하여 인프라 구축이 부족한 상황임.
 - 그 결과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은 8.8%에 불과함.
 - 그러나 향후 이용을 희망하는 노인은 24.4%로 향후 노인복지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견됨.
 -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경우 평균 이용일수는 주 2.5일이며 만족도가 82.8%로 매우 높음.
 - 또한 이용자의 이용이유를 살펴보면 여가 프로그램 이용이 가장 높아 57.9%이며 다음이 친목도모 16.9%, 식사서비스 12.8%, 건강관련서비스 5.4% 등이다. 경로당 이용이유가 친목도모에 집중되었던 것과 비교해볼 때 큰 차이점임.
 - 한편 노인복지관 이용에 만족하는 경우 그 이유로는 프로그램이 좋다는 점이 가장 많아 38.8%이며 다음이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22.4%, 비슷한 노인과 만나는 것이 좋아서 14.3%, 경제적 부담이 적어서 12.0%, 시설이 좋아서 9.7%이다. 또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다수의 노인들은 미이용 이유로 다양한 이유를 언급하고 있음.

- 거리와 교통이 불편해서라는 물리적 불편함을 언급한 비율이 31.0%로 약 1/3을 차지하고 있어서 경로당의 경우 3.2%인 것에 비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는 노인복지관의 수가 적어 노인이 생활하는 지역사회에서 먼 거리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다음으로 이용 노인과 맞지 않아서가 18.7%인데 이는 경로당에 비하여 훨씬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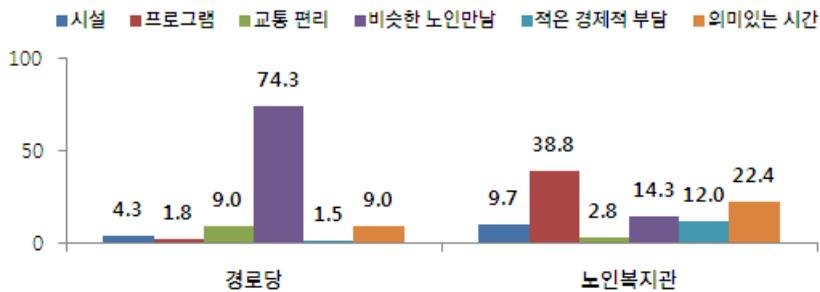
〈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의 이용률, 이용희망률, 이용일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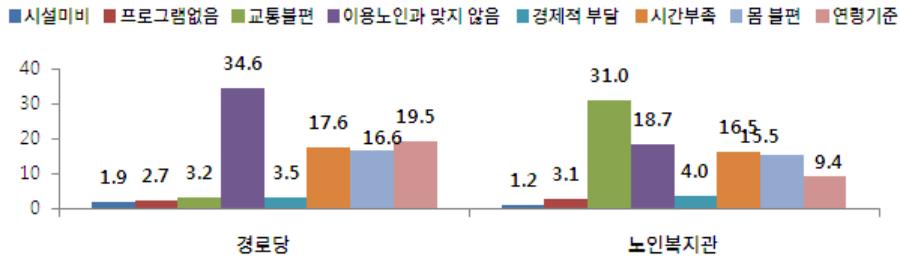
〈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이용 만족도 〉



〈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만족 이유 〉



〈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미이용 이유 〉



다.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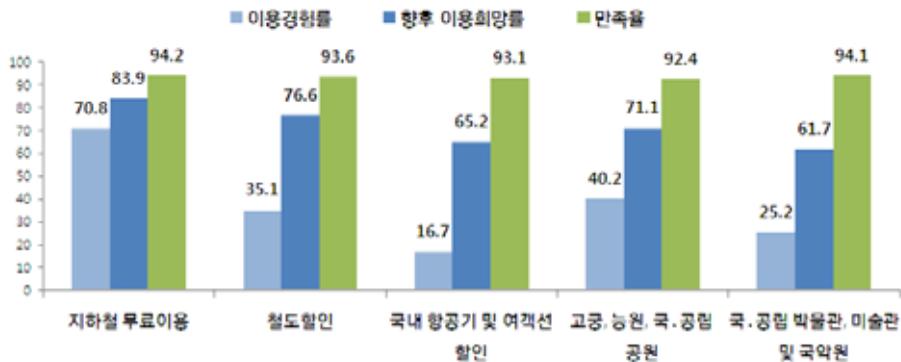
-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보호서비스에 대한 노인의 인지도를 살펴보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치매조기검진서비스의 인지도가 높아 각각 41.8%와 41.3%임.
- 이에 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치매예방프로그램의 인지도는 절반 정도 수준인 22.7%와 22.3%임.
- 또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또한 18.1%의 인지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각 사업의 사업기간과 포괄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식사서비스와 관련하여 노인 중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비율은 6.3%에 불과
- 한편 향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유료의 맞춤형식사서비스를 이용할 의사를 가진 노인은 12.6%인데 희망률의 수준 자체는 높지 않지만 현재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비율의 2배에 달하는 규모라는 점을 눈여겨 볼 만함.
- 또한 그저 그렇다는 유보적 입장을 표명한 노인은 7.0%이며, 이용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 노인은 80.3%임.

라. 경로우대제도

- 경로우대 이용경험률은 지하철 무료이용은 70.8%, 철도할인은 35.1%, 국내 항공기 및 여객선 할인은 16.7%, 고궁, 능원, 국·공립 공원은 40.2%,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및 국악원 무료입장은 25.2%이다. 즉 지하철 무료이용이 가장 많이 이용된 경로우대제도이며 국내 항공기 및 여객선 할인이 가장 이용 빈도가 낮은 경로우대제도임.

- 이러한 경로우대제도 이용자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모두 90%대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 또한 향후 이용희망률은 지하철 무료이용은 83.9%, 철도할인은 76.6%, 국내 항공기 및 여객선 할인은 65.2%, 고궁, 능원, 국·공립 공원은 71.1%,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및 국악원 무료입장은 61.7%로 나타났음.
- 즉 각종 경로우대제도에 대하여 현재 이용률에 비하여 훨씬 높은 향후 이용희망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하철 이용희망률은 80%대이고, 철도 및 고궁, 능원, 국·공립 공원은 70% 이상의 희망률을 보이고 있음.
-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및 국악원에 대한 이용희망률은 60%대로 실제 이용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5개 경로우대 서비스 중 가장 낮은 희망률을 보이고 있음.

〈 경로우대종류별 이용경험률, 향후 이용희망률, 만족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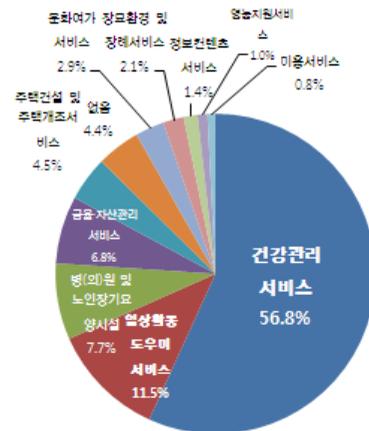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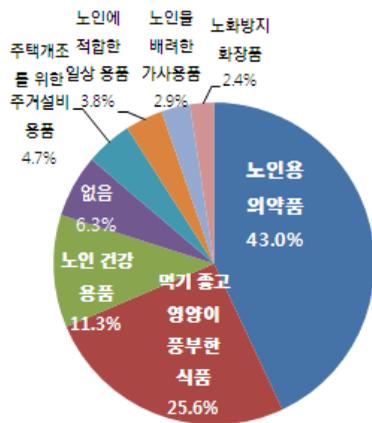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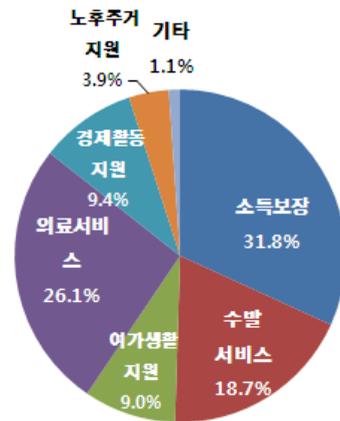


마. 관심사 및 서비스 욕구

- 노인의 현재 걱정하거나 고민하는 상황을 살펴보면 자신의 건강 및 기능약화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51.3%에 달하고 있고, 다음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18.0%임. 별다른 걱정이나 고민거리가 없다는 응답은 11.9%임.
- 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인복지서비스로는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이 소득보장으로 31.8%, 다음이 의료서비스 26.1%, 수발서비스 18.7%, 경제활동지원 9.4%, 여가생활지원서비스 9.0%, 노후주거지원 3.9%, 기타 1.1%의 분포를 나타내었음.

- 즉 노인은 소득과 건강악화에 대응하는 정책에 관심이 높은 것임.
- 필요한 노인용품으로는 43.0%가 노인용 의약품, 25.6%가 먹기 좋고 영양이 풍부한 식품, 11.3%가 노인건강용품을 언급하고 있고,
- 주거설비용품, 일상용품, 가사용품, 화장품 등을 언급한 비율은 5%미만임.

〈 노인복지서비스 우선순위, 노인용품, 서비스 1순위 〉



Ⅲ. 조사결과와 시사점 및 제언

1. 조사의 향후 발전방향

가. 노인실태조사의 정체성 정립

- 첫 번째 법정조사인 2008년 노인실태조사는 종단조사로서의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적절한 패널관리를 위한 예산확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2009년과 2010년에 패널 관리가 전화조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졌음.
 - 노인실태조사를 3년 주기의 횡단 통계를 종단면 통계로 전환함으로써 조사 주기의 장기화(3년)로 인해 표본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힘들고, 노인 표본의 성격상 요양소 입소 및 사망자의 다수 발생으로 패널 탈락률이 현격히 증가하는 문제점이 노정되었음.
- 국내 다수의 패널조사의 경우 횡단통계 작성의 목적 보다는 종단면적 분석에 부합하도록 표본규모를 일정수준으로 제한하여 관리하고 있음.
 - 한국복지패널: 7000가구. 한국 노동패널: 5000가구 등으로 횡단면적 통계 보다는 종단 연구를 위해 가구 규모를 제한하고 있음.
 - 이와 같이 표본규모를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조사 관리, 비용 등의 사유로 대규모 패널을 유지할 경우 표본 탈락을 및 관리를 위한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임.
- 2008년 기준의 노인인구가 표본 대상자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표본 노인의 연령대가 상승하여 실제 노령 인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제한점 또한 내포하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향후 노인실태조사는 3년 주기의 횡단 조사로의 전환을 통하여 횡단적 실태분석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현재와 같은 규모의 패널을 유지하면서 3년마다 전국노인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를 산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임.

- 횡단적 실태분석 뿐만 아니라 종단적 분석의 필요성이 있다면 별도의 패널조사를 기획하여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패널관리비용의 적정성과 중장기적으로 패널가구의 응답성향을 고려할 때 패널의 충성도에 따라 적정 규모의 패널 유지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패널가구는 5,000~8,000가구를 유지하는 것이 대다수임.
- 별도의 패널조사를 기획·수행하는 경우 향후 조사가 실시 되기 전에 패널의 규모에 대한 합의와 적절한 패널관리를 위한 예산확보가 선결되어야 할 것임.
 - 패널조사의 경우 패널로 구축된 가구는 차수 또는 웨이브가 지속될수록 패널가구의 탈락으로 인한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패널관리는 필수적임.
 - 2009년과 2010년과 같이 년 1회의 전화조사만으로는 적절한 패널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는 패널유지율 저하로 직결될 것임.
 - 또한 패널이 사망률이 높은 노인이라는 점을 감안해볼 때 지금과 같이 3년 주기로 조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기존의 많은 패널이 매년 1회의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참고할 만함.
- 시·도 통계의 산출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고민 또한 요구됨.
 - 2008년부터 노인실태조사를 통하여 시·도 통계를 산출하고 있는데, 시·도 통계산출을 위해서는 조사지역이 전국적으로 넓게 산포될 수밖에 없어 조사수행상의 어려움과 예산의 문제를 안고 있음.
 - 또한 전국단위의 동부와 읍·면부의 특성 비교를 통해 정책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확보될 수 있음.
 - 시·도별 통계가 필요한 이유는 각 시·도별로 구체적인 노인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국공통적인 내용 외에도 시·도별로 관심을 두고 있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조사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각 시·도에서 노인실태조사 수행을 위한 예산에 일정 부분 기여하여야 할 것임.

나. 조사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

- 조사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사의 목적을 실용적 목적뿐만 아니라 학문적 목적도 병행해가야 할 것임.
 -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회조사는 개인이나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행하는 조사에 비해 표본 규모가 큰 대규모 조사가 되는 만큼 그 목적이 정책의 계획이나 개선에 활용하는 것과 동시에 학문적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외국과의 공동 또는 비교연구의 활성화 필요
 - 정책적 활용은 물론 학문적 활용을 위해 선진외국의 비슷한 조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비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행될 수 있다면 더욱 의미 있는 조사가 될 수 있을 것임.
 - 결과보고서의 중요사항 또는 요약 부분은 영문으로 번역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별도의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거나 조사 질문지와 코딩북의 영문번역 작업 등도 필요할 것임.

다. 안정적인 통계산출을 위한 조사 주관 및 관리 기관의 지정

- 안정적인 통계 현재까지는 조사를 주관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확정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함.
 - 즉, 조사 설계, 시행 및 자료 관리 등의 일관성과 편의성 등을 위해서 조사주관을 한 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가. 기본방향

본 조사결과에 기초해볼 때 향후 노인복지정책이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1) 노인의 변화에 대한 관심과 고려

□ 조사결과 노인의 특성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 노인의 교육수준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노인단독기구의 증대, 공적연금의 확대 및 공적서비스에 대한 이용률 증대 등의 변화가 이루어졌음.

○ 이러한 외부적인 변화 뿐만 아니라 노인의 내면적인 변화도 발생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노인자신을 노인으로 규정하는 연령 기준이 높아지고 있음.

• 더 이상 60대는 노인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으며 70대에 진입하여야만 노인임을 받아들이고 있음.

○ 또한 건강과 기능이라는 측면에서도 80대에 접어들면서 급격한 저하현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노인들은 자녀와의 동거를 당연시하지 않고 있으며,

- 곧 노년기에 접어들 예비노인인 베이비부머들은 대부분 단독기구를 희망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노인의 사고의 변화와 생활기반의 변화를 감안한 정책을 마련해가야 할 것임.

○ 구체적으로는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에 대한 구분과 특화된 접근이 요구됨.

○ 특히 평균수명이 증대하고 있어 노년기가 길어지고 있다는 점 또한 정책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더불어 현재의 노인과 미래의 노인의 특성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래 노인세대의 특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임.

2) 노인의 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대응전략 마련

- 노인은 더 이상 하나의 집단이 아님.
 - 본 조사결과 지역별 차이와 성별 차이, 연령군별 차이, 교육수준별 차이 등이 분명하게 표출되었음.
- 지역별로 보면 동부에 비하여 읍·면부의 경우 거주노인의 교육수준이 낮고 노인단독가구 비율이 매우 높으며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특성을 갖고 있음.
 - 따라서 도시지역과는 다른 농어촌 지역 노인을 위한 특화된 정책이 요구됨.
 - 특히 농어촌 거주 노인의 경우 이웃 등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의미와 역할이 크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역할을 어떻게 강화하고 활용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됨.
- 또한 성별 차이가 매우 큼.
 - 남자노인에 비하여 여자노인에게서 독거의 비율이 월등히 높으며, 전통적인 성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의존적이며 따라서 노후소득과 관련해서도 의존적인 생활과 생각을 갖고 있음.
 - 또한 노년기에도 그들이 수행해온 가사노동과 보호로 대표되는 무보수 노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이러한 현황은 여자노인의 열악한 사회적 위상과 사회적 위험에 처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어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됨.
 - 가구내의 무보수 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더불어 이들의 무보수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제공이 여자노인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저하시켜줄 수 있을 것임.
 - 더불어 적절한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한편 노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다양한 차이가 발견되었음.
 - 교육수준은 단순한 교육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후소득 등의 경제적 자원, 가족 및 사회적 관계와 같은 사회적 자원의 크기와도 정비례하고 있음.
 - 또한 노후생활에 대한 기대에도 영향을 미쳐, 현재의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만으로는 이들이 활동적인 노년기를 향유하기 위해 요구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제한이 많음.

- 지속적으로 증가할 충분한 경제적 자원과 풍부한 문화여가활동 경험을 갖고 있는 노인층을 대상으로한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 더불어 노인의 거주형태만으로 대상자 선정이나 서비스를 획일적으로 예상할 수 없게 되었음.

- 더 이상 노인들은 자녀와의 동거를 당연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받기 위해 서만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아니다. 자녀를 도와주기 위하여 동거하는 경우부터 자녀의 보호를 받기 위해 동거하는 경우까지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음.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단독가구의 경우도 자발적인 단독가구형성과 비자발적인 단독가구 형성이 혼재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거주형태만으로 노인의 독자성과 의존성을 판단할 수 없게 되었음.
- 거주형태보다는 거주유형의 원인에 대한 검토에서 출발하여야만 정책대상자의 욕구 충족과 체감도가 제고될 수 있을 것임.

3) 정책적 관심사의 확대

□ 기본욕구 충족에서 상위욕구 충족으로 정책범위 확대를 통한 노인의 삶의 질 제고가 요구됨.

- 지금까지의 노인복지정책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 충족에 초점을 두어온 것이 사실임.
 -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등이 바로 그 것이며, 이를 통하여 노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빈곤’과 ‘질병’의 문제에 대응하는 사회제도의 정립이 이루어졌음.
- 그러나 노년기의 ‘고독’이나 ‘무위’의 문제해결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사실임.
 - 이러한 문제는 노인의 상위욕구인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등의 충족과 이어지는 것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임.
 -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노인의 29.2%는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노인중 11.2%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노인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됨.

나. 정책방안

1) 소득보장정책

-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 등으로 노인의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는 많이 해소되었음.
 - 그러나 아직 노인의 소득수준 자체는 높아지지 않아서 빈곤을 많이 경험하고 있음.
 - 삶의 만족도에서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낮아, 만족한다는 비율은 17.9%에 불과하며,
 - 노인의 다수가 주거비용과 보건의료비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음.
- 노후소득의 근간이 되는 공적 연금제도의 개편 등은 이미 노년기에 접어든 노인들에게는 실질적인 영향력이 적음.
- 또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지급 범위와 액수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 중임.
- 따라서 이러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제도적 수정보완적 조치와 더불어 노인의 지출과 관련된 지원정책 등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주거비 지원이나 보건의료비 지원 등이 필요함.
 - 노인일자리 사업의 내실화와 강화를 통하여 실질적인 노후소득 창출의 기회를 확대해 가야 할 것임.
 -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노인은 6.8%인데 비하여 향후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18.0%로 욕구 대비 참여노인의 규모가 작은 실정임.

2) 보건의료정책

- 노년기는 신체적 및 정신적 질환 등 여러 건강문제로 인해 건강상태가 열악한 시기임.
 - 노인의 44.4%가 자신의 평소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 특히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88.5%로 각종 신체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이 크게 작

용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로 인하여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는 자가 84.0%에 이르고, 지난 2주간 의료이용률이 56.1%이 되며, 86.5%가 지난 한 달간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출한 바 있음.

- 이러한 건강상태와 의료이용실태는 노년기 만성질환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함.
- 최근 도입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고혈압과 당뇨관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만성질환을 2개 이상 지닌 복합이환율이 68.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러한 개별 질환에 대한 관리적 접근 외에도 복합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함

- 다수의 만성질환을 동시에 지닌 노인은 신체적 쇠약, 정신적 기능저하, 입원 및 장기요양 등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집중적인 관리 대상이 됨.

- 또한 여러 약의 복용으로 상호작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의 위험이 높아 각별한 복약지도 및 관리가 요구됨.

- 나이가 추가적인 만성질환 발생을 예방하고, 만성질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건강상태의 악화 및 장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재가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의 활성화가 필요함.

- 현재 방문건강관리 및 가정간호서비스 이용률이 7.8%로 매우 낮은 것은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서비스가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을 반증해 주고 있음.

- 현재 노인의 건강행태는 일차예방적인 건강관리서비스의 수요가 높음을 보여줌.

- 노인의 12.6%가 현재 흡연자이며, 33.8%가 현재 음주자, 30.5%가 영양관리상태에 문제가 있으며, 노인의 50.3%가 현재 운동을 실천하고 있음.

- 하루 평균 적정수면시간인 6~8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경우는 45.2%임. 이러한 건강생 활습관의 미흡은 노년기 건강증진의 필요성을 시사함.

- 현재 노인건강증진 및 건강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율은 12.6%로 매우 낮아 노년기 건강증진사업의 개발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특히 노인의 지난 3년간 건강행태가 크게 개선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노인을 위한 적극적인 건강상담 지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건강서비스 및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또한 노인 중 취약계층인 여자, 고연령, 독거노인, 저학력, 저소득, 기능제한이 있는 자의 건강상태와 건강행태가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을 감안할 때 만성질환 및 건강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한 노인보건의료사업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임.

3)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정책

- 노인의 다양한 사회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여가문화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여건 조성이 필수적임.
 - 노인의 대부분이 하루 약 4시간 정도의 TV를 시청하는 것에 반하여 약 30%는 이렇다할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주된 여가문화활동이 화투·카드나 몇 개의 프로그램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한편 전반적인 본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정도에서 약 1/3정도만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음.
- 따라서 노인 여가문화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홍보교육이 필요하며, 다양한 여가문화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요구됨. 다음과 같은 방안의 정책방안 구체화가 요구됨.
 - 여가문화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지역사회 단위의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 1인 1여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여가문화활동 프로그램의 활성화
 - 다양한 계층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형 여가문화활동 시설의 활용 등
- 더불어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요구됨.
 - 노년기 여가시간의 의미있는 활용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자아존중감을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습을 통해 성공적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것임.
 - 현재 평생교육 참여율(6.7%)은 낮은 수준이나 향후 참여 희망률(14.7%)은 증가하는

등 평생학습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연령통합적 접근으로 교육 기회를 확대 시켜야 할 것임.

- 노인여가복지시설 뿐 아니라 지역내 대학 및 여가문화시설 간 유기적 연계로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 노인의 활동적 노화를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의 다양화도 필수적임.

○ 현재 자원봉사활동 참여율(3.9%)은 매우 낮은 수준이나 향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9.9%)는 의향을 보이고 있음.

- 또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로는 자신의 성취와 만족감·즐거움을 위해서(70.9%)와 자신이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돌려주기 위해서(24.3%)라는 응답 비율이 매우 높고, 대부분 현재의 자원봉사활동에 만족한다(96.2%)고 조사결과에서도 제시되고 있음.

○ 그러나 자원봉사활동 수행분야에서는 사회복지분야(48.6%)와 환경보호분야(14.5%)에 편중된 경향임.

○ 따라서 다양한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 활동에 관한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결사체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함.

